

전남 수출 반등에 지역 무역흑자 20억달러 돌파

전년동월비 누계 29.5% ↑ 전남 수출 수송장비 등 호조 한달만에 7.3% 증가 전환

지난달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면서 지역 무역수지가 1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 수출은 한달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서면서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다.

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한 48억5000만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35억6000만달러로 무역수지 1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월(8억2700만달러) 대비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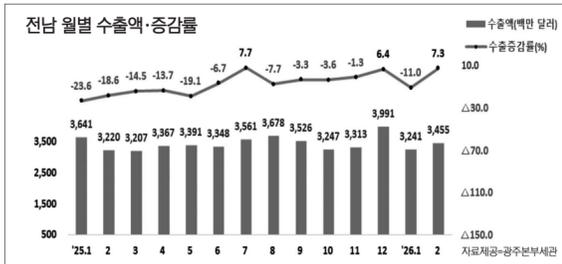
구분	2025년		2026년		1~2월
	2월	1~2월	1월	2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535 (△14.3)	9,338 (△19.0)	4,744 (△1.2)	4,847 (6.9)	9,591 (2.7)
수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644 (△3.9)	7,705 (△4.2)	3,917 (△3.5)	3,558 (△2.4)	7,477 (△3.0)
무역수지	892	1,633	827	1,288	2,116

55.7% 증가한 8억9200만달러 대비 44.4% 각각 급증했다. 연간 누계로는 지난해 16억3300만달러에서 21억1600만달러로 29.5%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한 13억9000만달러, 수입은

10.8% 증가한 7억3000만달러로 무역수지 6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61.2%), 기계류와 정밀기기(7.2%)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며 수송장비(-5.2%), 고무 타이어 및 튜브(-39.2%), 가전제품(-54.8%)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



42.3%)은 2개월 연속 감소세, 중국(-5.6%)은 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반면 동남아(50.5%), 유럽연합(50.3%), 중남미(36.2%) 등은 증가했다.

수입은 반도체(10.4%), 기계류(62.9%), 가전제품(4.0%), 기타(6.4%) 품목이 증가한 반면 화공품(-

20.1%) 등은 감소했다.

전남은 수출 호조가 두드러졌다.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7.3% 증가한 34억6000만달러, 수입은 5.2% 감소한 28억3000만달러로 무역수지 6억3000만달러 흑자를 이끌었다.

전남 수출은 식유제품과 철강판 등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지난해 8월 7.7% 감소를 시작으로 9월 3.3%, 10월 3.6%, 11월 1.3% 줄며 4개월 연속 역성장을 보였다. 이후 12월 6.4% 반등하며 40억달러를 돌파했지만 지난 1월 32억3900만달러로 11.0% 감소했다.

식유제품(4.2%), 철강 제품(0.5%), 수송 장비(151.9%), 기계류와 정밀기기(50.0%)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화공품(-11.5%)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주요 수출 대상국 중 유럽연합(50.0%)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동남아(-27.4%), 미국(-13.7%), 중국(-15.0%), 일본(-22.3%)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철강(0.2%), 석탄(97.2%), 식유제품(9.5%) 등이 증가하고 원유(-12.1%), 화공품(-25.7%) 등은 감소했다. 현영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도는 GS리테일과 협력해 도시락·삼각김밥 등 간편식 제품 원료로 새청무 쌀을 공급하기 위해 16일 장흥 정남진통합RPC에서 첫 상차식을 열고 GS25 편의점과 GS더프레시 매장을 통해 전국 판매를 시작했다.

전남 '새청무쌀', GS리테일 간편식 원료로 공급

정남진통합RPC서 첫 상차식...연 2만 도시락·삼각김밥 기공

전남 대표 쌀 품종인 '새청무'가 편의점 간편식 원료로 활용되며 전국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전남도는 GS리테일과 협력해 도시락·삼각김밥 등 간편식 제품 원료로 새청무 쌀을 공급하기 위해 16일 장흥 정남진통합RPC에서 첫 상차식을 열고 GS25 편의점과 GS더프레시 매장을 통해 전국 판매를 시작했다

이날 상차식에는 전남도와 장흥군, 농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청무쌀 8t이 첫 출하됐다.

농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청무쌀 8t이 첫 출하됐다.

전남도는 GS리테일과 협력해 도시락·삼각김밥 등 간편식 제품 원료로 새청무 쌀을 공급하기 위해 16일 장흥 정남진통합RPC, 해남 화산농협에서 생산한 새청무 쌀을 GS리테일 간편식 제조공장에 원료곡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연간 약 2만 규모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전남·광주 인구 약 320만명이 42일간 소비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공급된 쌀은 전국 7개 공장에서 도시락과 삼각김밥 등 간편식 제품으로 가공돼 GS25 편의점과 GS더프레시 매장에서 판매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식 소비 확대에 따라 즉석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번 협력은 전남 쌀의 새로운 소비처 확보와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을 확대해 전남 쌀을 활용한 간편식 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GS리테일과 협력을 통해 새청무 쌀이 전국 소비자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형 유통망과 연계한 쌀 소비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남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CJ제일제당에 새청무 원료곡을 공급해 즉석밥 제품을 출시·판매하고 있으며, 전국 140여개 암샘김밥 매장에도 새청무 쌀을 공급하는 등 유통망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치 유래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세계김치연구소 기술 이전 군주 식약처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 팜스빌과 공동연구·기술협력 전통 발효 미생물 산업화 '성과'

세계김치연구소가 보유한 김치 유래 유산균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공식 인정되며 전통 발효 미생물의 산업화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자원은행'에 등록·보존해 온 김치 유래 유산균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팜스빌에 기술 이전된 이후 '웨이셀라 콘푸사(Weissella confusa) Wikim51 프로바이오틱스(Wilac D 001)'라는 원료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정형 원료(제2026-6호)'로 최종 등록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Wikim51은 연구소가 2014년 경상도 지역 민들레김지에서 분리한 김치 유래 유산균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비만 기능을 지닌 균주다. 연구소는 해당 균주의 기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뒤 2019년 관련 기술을 팜스빌에 이전했다.

이후 기업은 인체적용시험과 안전성 평가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국가 인증

을 획득했다. 해당 균주는 2022년 미국 식품의약품의 신규 식이원료 제도인 NDI(New Dietary Ingredient) 목록에도 등재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안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별인정형 원료' 제도는 인체적용시험과 독성시험 등 과학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공식 인정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이번 사례는 김치에서 유래한 미생물이 과학적 검증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제연구기관이 확보한 전통 발효 미생물 자원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로 상용화된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소의 기초 연구성과가 기술이전 연구 끝에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아 제품화 통해 국가 기능성 인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병용 팜스빌 대표는 "세계김치연구소로부터 이전받은 우수한 기능성 균주에 오랜 연구 끝에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Wilac D001을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 국내 시장은 물론 미국·중국·일본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소상공인 경영위험 분담... '상생보험' 사업 추진

도, 금융위·보험업계와 협약...3년간 20억 규모 경영위험 대응 사회안전망 구축...하반기 시행

전남도가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 경영위험을 분담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경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 협력 모델이다.

전남도는 1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전국 6개 시·도, 함께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익원 금융위원장과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광주·충북·경북·경남·제주 부단체장,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영 위험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공모 사업'에 선제형 향후 3년간 총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는 상생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경영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 변동과 각종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경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활용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참여 지자체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세부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구조와 보험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상생보험 사업을 본격



전남도는 1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전국 6개 시·도와 함께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 금융 안정을 강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안정에도 일익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영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영 위험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금융의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김치담그기 연중 프로그램' 운영

3~10월 넷째주 주말 김치타운...고추장 담그기 체험도

시민들이 계절과 관계없이 김치를 직접 담가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광주김치타운 다목적체험관에서 '김치담그기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치담그기 연중 프로그램'은 김장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김치를 직접 담가보고 싶다는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운영 시기를 한 달 앞당겨 3월부터 시작한다. 프로그램은 매일 넷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매달 '이달의 김치'로 선정된 김치 3종을 전문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직접 담가보고 완성된 김치를 가져갈 수 있다. 3월 프로그램에서는 배추김치와 파김치, 열무김치가 준비된다. 김치 가격은 원재료 시세를 반영해 매달 조정된다. 프로그램 개시에 맞춰 특별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광주김치축제 대통령상 수상자와 함께하는 '고추장 담그기 체험'으

로, 참가자들은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 신청은 17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개인은 물론 기업과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빛고를 사랑 나눔 김장대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행사에는 전통식품품질인증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지역 김치 제조·가공업체가 참여해 국내산 원재료로 만든 김치를 시중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할리런 가격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신선한 재료로 김치를 직접 담그며 건강한 식문화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참여형 김치 나눔·판매 행사인 '2026년 빛고를 사랑 나눔 김장대전'은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